



란 장

미끄러지는 마음

란 장이 쓴 글의 화자는 2123년에 살고 있으며, 동아시아 회색 지대 거주민의 후손이다. 그녀는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안락의자에 앉아 알려진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주변의 사물을 분석하고, 세심한 비평과 인지적 자기 의심, 유사 합리성, 가공의 부조리 사이에서 표류한다. 이 글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면서 겪은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다.

‘쯔’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2023년, 대마초에 빠진 어느 10대에게 베를린의 중국인 친구가 붙여준 이름이다. 어떤 언어적, 문화적 맥락에서도 단어의 의미를 떠올릴 수 없었기에, 이는 그들에게 기발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독일-동아시아의 혼종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확성이 존재하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쯔’라는 이름은 이제 훨씬 더 오래된 듯하면서도 동시대적인 것처럼 들린다. 이 이름은 오늘날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고, 심각한 착취가 일어나고,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며,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고, 유명한 동시에 무명이다. 우리는 조야한 국제화, 고풍스런 쾌락적 기술주의, 원초적인 인터넷 교육으로 시작된 활발한 엔트로피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회색 지대, 모든 것을 담고 균질하게 만드는 형태 없는 수프가 든 냄비와 같은 가시적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다.

회색 지대는 일종의 부수적 효과, 즉 ‘남겨진 것’이자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순수한 영역으로 여겨지곤 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적/문화적 입장이 표면적 가치로 인해 충돌하면서 새롭게 구축된 관습적 공통점을 형성함으로써 생겨났다. 여기서 남겨진 것은 100년 전의 이민자와 제3세계 시민, 중심을 벗어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간혀 있던 걸 알게 되었던 정의되지 않는 영역, 그들에게 익숙한 향상을 되찾는 과정과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과정, 나의 증조모는 일종의 ‘결합’이라고 여겼던 것 사이에 갇힌 무언가였다. 회색 지대는 그러나 정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여러모로 놀라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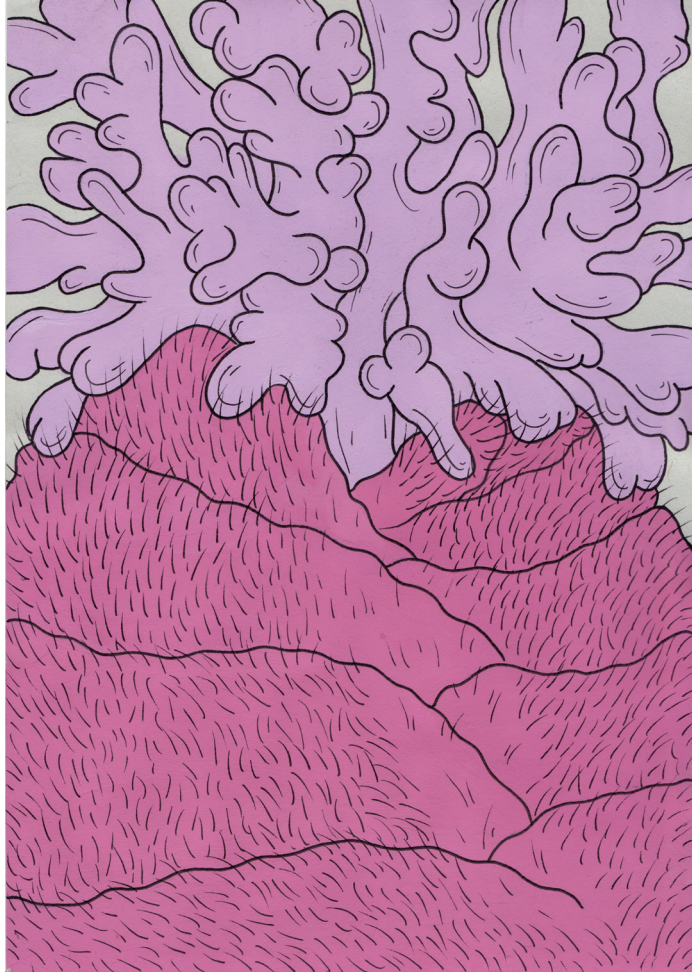


‘쯔’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회색 지대에 사는 인구의 증가와 회색 지대 유형의 감소가 격차를 벌리면서, 그 시절의 회색 지대는 거꾸로 뒤집혀 오늘날을 규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이며, 우리가 단순히 정상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 고도로 희석된 본질, 모든 것이 밀집된 혼합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극과 극을 오가고 선명한 이미지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몽푹하게 흐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걸까? 높은 압력을 버티는 장벽이 폭발하면, 모든 분열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거대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눈을 뜨고서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변화의 기울기를 자세히 살피고 이 세계에서 삶의 편린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피기를 바라는 걸까?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중요한 지식과 경험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걸까?

고대의 회색 지대 거주민의 후손인 내가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성은 오늘의 맥락에서는 모호하지만 과거의 맥락에서는 명확하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지난 효과가 정체성을 좇는 것 외에도 존재한다면, 이는 마치 멋진 예술 작품과 같아서 잘 정돈되고 정의가 내려지며 의미가 있지만 그저 재현하고 평행할 뿐이라는 점이다. 나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2세기에 걸쳐 허깨비 같은 현실에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100년 전만 해도 탈-탈-식민적 정상성이 일상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사라지게 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우아하고 ‘문명화’되었다는 상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위 정장을 입어야 했으며, 서구에서 만든 영화에서 본 제스처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느라 목과 팔을 뻗뻗하게 세웠지만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또한, 원래 쓰던 달력을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에 바탕해 만들어진 달력 체계로 변환하려면 수학적 계산에 능해야 했다. 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또는 원래 자기 땅에서 자라던 식물의 공식적 이름을 라틴어로 명명했고, 라틴어로 쓰인 용어를 발음할 수 없고 원래 존재하던 현지의 이름에서 의미가 자연스레 분리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했다. 반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면 5살 정도 된 어린 자녀에게 발레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취향을 드러내고 인상을 남기기 위해 서양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는 수백만에 이르는 여성이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드는 패션 속임수를 익혀 사회적 지위에 우선순위를 두곤 했다. 사람들은 일상의 가장 평범한 측면을 다룰 때 마치 여러 유령이 모든 몸 안에서 영원히 나타나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기라도 하는 듯 이름 없는 이국적 행위를 수행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무조건



우월한 이국적 선택지에 직면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생물학적 아름다움과 내재적 연결은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선택권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걸까?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특수한 맥락을 지닌 문제라는 것을, 그러나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한 맥락을 지닌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만 했다. 거기에는 순수한 기쁨도 억압도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방향과 맞물려 항상 절반의 이중성이 존재했다. 즉,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혹은 불행히도,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치 않았든, 이후 또 다른 한 세기 동안 현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피상적인 단조로움이 모든 공간을 점유하고, 놀랍게도 이것은 그 어떤 자극도 자아내지 않았다. 심지어 전쟁조차 ‘용인’되곤 했다. 과거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관한 것이든 의미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이때 미래는 이미 일어나버린 것에 대한 환상에 겹쳐진 무언가다. 아시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아성이 세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는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대신 왜 이런 질문이 잠재적으로 답을 찾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인 정신의 여행은 정말 재미있으니까! 작년, 유엔 산하 단체인 ‘컬트와 수양 연구소’는 자기 돌봄에 대한 고전 신경과학을 다루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순수한 형이상학적 실천이 실존적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신의 여행은 세포막의 이온 유입을 증가시켜 세포 내부와 외부에 있는 플라즈마 사이에서 추가적인 촉매 작용을 유발한다. 이것은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정신의 여행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나는 흘러가는 생각이라는 만트라 안에 갇힌 내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욱 건강해졌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의미에 관해서 나는 내가 과거의 맥락에 놓여 있다고 상상할 때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의 세계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접한 환경의 자발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먼 곳을 보며 비교하지도 않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을 비교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측정값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것이 일어나버린 탓에, 대안을 찾는 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삶에는 오직 하나의 움직임만 존재하며, 이는 정확성과 만족 그 둘 사이에서 정확히 유지된다. 슬픔은 없다.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러나 100년 전과 같은 이중성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현실은 뱀속 깊이 전능하다. 국제주의, 권위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세계평화 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얼추 설명하는 모든 낡은 정치 용어의 의미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방적이다.

마치 2023년의 세계가 이제는 아무런 감각과 의미가 없는 재료인 종이를 대했던 것처럼, 젓가락은 더 이상 (동)아시아적인 물건이 아니며, 김치는 모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반찬이 되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이주한 현대인과 지속적으로 섞이면서 유전체가 희석되었을 뿐이라는, 이제는 도시 전설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그들의 ‘소멸’은 섹스와 파트너십으로 인해 일어났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는 건 사람이 할 만한 평범한 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그저 아무 일도 아니다. 이 문장에는 숨겨진 역설이 없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진술이다. 사람들이 더는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된 것뿐이다. 어떤 문제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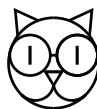
하지만 무빙 이미지가 200년간 형태를 바꾸며 존재한 뒤 이제서야 물어 볼 것도 없이 촌스러운 것이 되기 시작하고, 하이테크/로우테크의 질감이 치명적이리만치 낡아 빠진 것이 되어감에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새로운 표면에 입을 맞추길 열망한다고 나는 느낀다... 눈 속의 분홍색은 아시아의 상징적 자연주의, 진부화된 이국적 키치, 독재적 자매애, 친숙한 조형성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공백이 있었고, 언제나 새로운 공백이 형성되고 있으며, 앞서 존재했던 공백/들과 합쳐지고, 충돌하고, 철회하고, 고통도 없고, 보상도 없고, 변형되고, 다시 변형되길 반복해 왔다.

저자 소개

란 장은 로테르담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이미지와 지식 습득 사이에 있는 정서적 동력을 찾기 위해 오래전 산업 대도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 일상의 경험을 하나의 종합적 언어로 결합해 낸다. 베를린의 갤러리아 플랜 B에서 《Enantiomers and Traces》를, FRAC 몽펠리에에서 《Jiggly Motions》를 선보인 바 있다.



편집: 잉고 니어만

한국어 번역: 박재용

영어 텍스트 편집: 로잔나 맥러플린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3, 란 장,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